

## [6·3양산] "비방 대신 정책 경쟁 합시다" 조문관·나동연 협약

등록 2026.05.11 13:39:32



[양산=뉴시스] 6·3 지방선거 경남 양산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조문관 후보와 국민의힘 나동연 후보는 11일 오전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클린선거 실천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나동연 선거사무소 제공) 2026.05.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양산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조문관 후보와 국민의힘 나동연 후보가 소모적인 비방전을 지양하고 정정당당한 정책 대결을 펼치기로 합의했다.

두 후보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결의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조문관 후보와 나동연 후보는 11일 오전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클린선거 실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을 차단하고 양산의 미래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경쟁만으로 승부하겠다는 두 후보의 결단에 따라 마련됐다.

조 후보는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이 되어야 함에도 선거 때마다 네거티브가 만연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산이 대한민국 선거 문화의 격을 높이는 발원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오늘의 약속은 양산 시민들께 드리는 엄중한 약속"이라며 "비방 대신 희망의 공약으로 양산의 미래 비전을 경쟁하겠다. 이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신이며 시민에 대한 예우"라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협약식에서 "양산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상대를 깎아내려 얻는 승리가 아니라 시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정책으로 승부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협약이 전국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보기 드문 협치와 품격의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두 후보는 이번 선거가 단순한 승패를 넘어 지역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두 후보는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보다는 본인의 핵심 공약과 실천 방안을 알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